

## 청초 강남지역의 명대 유민결사: 경은시사를 중심으로<sup>1)</sup>

박영순(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I. 시작하며
- II. 청초 강남지역의 유민결사
- III. 경은시사의 활동과 특성
- IV. 경은시사의 시가창작
- V. 맺으며

### I. 시작하며

청초의 명대 유민들은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사’를 통해 힘을 응집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결사는 일종의 생존방식이다. 그들의 삶은 새 정권의 고압정책에 대한 저항과 위축, 운신의 폭의 한계로 인한 좌절과 은거, 회유정책으로 인한 동화와 체제 내로의 유입, 동료 유민들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상실감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시문(詩文) 창작으로 남겼다.

청초 유민들이 맞닥뜨린 개인의 암담한 운명과 정치의 변화에 대한 불안은 복명항청(復明抗淸)을 위한 투쟁으로, 벼슬에 대한 거부로, 피난을 위한 유랑으로, 단절을 위한 은거로, 도피를 위한 승려생활 등의 생존방식을 낳았고 또 그러한 심정을 저술과 창작 활동으로 풀어내었다. 이들은 특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결사라는 생존의 방식을 택하여 유민이자 문인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유민결사는 송원 교체기에 출현하여 명청 교체기에 이르러 활동과 영역, 숫자와 영향력 면에서 더 넓어진다. 특히 청초 유민결사는 강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다. 원나라 때 송대의 유민결사는 주로 남송의 고도 항주를 주축으로 하는 절강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 유민결사 역시 명대의 고도 남경을 주축으로 하는 강소 일대가 중심이 되었다. 강남지역은 유민들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투쟁의 공간이었고 정신적 도피처로도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강남지역의 정치적, 인문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남기기도 했다.

유민결사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유민 자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일부 유민결사를 문인사단과 문학유파, 문학 지리학 안에서 일부 다룬 저서와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개별적인 유민결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기 드물다. 이들에 대한 자료가 지방지, 역사서, 문집 등에 산견되어 있거나 문헌 확보의 미흡 등으로 인해 그러하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부족하나마 연사, 경은시사, 유민결사의 생존문제 등에 대한 연구도 보인다.<sup>2)</sup>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1) 이 논문은 정리 중인 초고이며, 인용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관련 자료로 何宗美, 『明代文人結社研究與文學流派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5. 周于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李偉煌, 「中國文學地理學論著的數理統計與分析」, 廣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吳增禮, 「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 湖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周于飛, 「驚隱詩社與山陰秘密反清團體交遊考」, 『紹興文理學院學報』, 2016, 第6期. 周于飛, 「驚隱詩社成員認定過程考論」, 『廈門教育學院學報』, 2011, 第3期. 王文榮, 「清初江南遺民結社研究: 以蘇松常鎮四府爲考察中心」,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1, 第4期 등이 있다.

한다.

유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역사적인 범주 안에서 많이 다루어 왔고, 상대적으로 문학적,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 그들의 창작을 통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유민을 정치·사회적인 큰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지만 정치적 행위와 활동만으로는 그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투쟁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적 행위, 심리적 변화도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행위 즉 창작활동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그들의 실제적 내면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그들은 결사를 통해 어떤 활동과 삶을 추구해왔고 어떠한 관련 작품을 남겼는가, 또 그런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속에서 담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 점이 유민결사를 이해할 때 유민들의 외부적 활동 외에도 작품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문인이자 유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했던 유민결사의 상황을 살펴보고자한다. 청대 유민결사와 강남지역의 유민결사의 특징과 경은시사의 활동과 창작 두 범주로 전개한다. 경은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 강남지역은 유민들에게 투쟁, 생존, 도피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초 강남지역, 유민결사, 경은시사는 역사적, 인문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세 축로 작용한다.

## II. 청초 유민결사의 특징

### 1. 유민의 정의

유민에 대한 정의는 의견이 다양하다.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정치적 입장에서 ‘벼슬’의 유무에 무게중심을 둔 해석이다. 謝正光은 유민이란 명대에서 태어나 청에서 벼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키며, “사적이 드러났든 앓았든, 명나라에서 과거에 응시를 했든 앓았든, 혹은 승려든 도사든 여자이든, 혹은 공적으로 학술로 문예로 가문 등 그 중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적 원칙과 입장을 나타낸 사람이다.”<sup>3)</sup>라고 한다. 유민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만학자 何冠彪는 “조대가 바뀐 후 새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사람”, “명이 망한 후 더 이상 녹과 벼슬을 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 하루라도 청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유민으로 간주한다.”<sup>4)</sup>라고 하였다.

사정광, 하문표는 명대에서 태어나 청에서 벼슬을 거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주로 “왕조가 바뀐” “벼슬하지 않음”이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다소 단정적인 정의이다. 청초에는 청정부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상당수의 유민들이 벼슬하기를 거부하였지만(하기도 어려웠지만) 건륭 이후 한족에 대한 완화정책으로 유민결

3) “凡著仕籍或未著仕籍，曾應試或未及應試於明，無論僧道閹閣或以事功或以學術，或以文藝或以家世，其有一事足以記而能直接或間接表現其政治原則與立場者。” 謝正光，『明遺民傳記索引·敘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

4) “易代後不仕新朝的人”，“明亡後不再干謁祿位的人，且只要一未仕清，仍當作遺民看待。” 何冠彪，『明末清初學術思想研究』，臺北：學生書局，1991，53-124，105쪽.

사도 느슨해지고 정치적 활동도 적어지면서 유민결사의 분화와 더불어 벼슬을 한 유민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戴名世는 “명나라가 망한 후 생원들은 은거하여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초심을 바꾼 사람이 열에 일곱 여덟은 된다.”<sup>5)</sup>라고 하였다. 명나라 멸망 후 사대부의 생활이 비교적 길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4,50년을 더 살기도 했다. 가령 일부 朱彝尊, 施閏章 등과 같이 일부 청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지만 그것은 명이 망한 후 바로 출사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강희17년 “박학홍사과”로 인해 출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6)</sup>

둘째, 우국구세의 정신, 옛 왕조에 대한 충정과 절개에 중심을 둔 해석이다. 경은시사의 성원인 歸莊은 「歷代遺民錄序」에서 “도와 덕을 품고 세상에 쓰이지 않은 사람은 逸民이다. 하지만 유민은 오직 흥폐의 교체기에서 그 전의 조정에 의해 남겨진 사람들이다.”<sup>7)</sup>라고 했다. 즉, 일민은 도와 덕을 품고도 평생 벼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민은 벼슬을 하고 안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흥폐의 교체시기에 다른 조정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해석이다. 일차적으로 자의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흥폐교체기에 일민 역시 유민에 속할 수 있지만 유민을 ‘逸’ 자체나 벼슬자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기보다는 그보다 우국구세의 정신, 옛 왕조에 대한 충정과 절개를 지키는 나아가 청정부에 투항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귀장의 삶도 그러했고 경은시사의 활동에서도 잘 보여 지는 점이다.

셋째, 유민의 태도, 심리, 신분 등에 중심을 둔 해석이다. 유민들의 정치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유민의 가치태도, 생활방식, 감정상태 등 “유민의 태도, 심리, 신분”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한다는 입장이다.<sup>8)</sup> 趙園은 벼슬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민의 심리, 역할, 사회적 신분 등에 보다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方勇은 남송의 유민을 정의할 때에 주로 사인의 내면 깊은 곳에 강렬한 유민의식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한다고 하였다.<sup>9)</sup> 대만중앙연구원 王璦玲교수 역시 청초 유민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의 입장에서 왕조 교체 시기의 지식인이 스스로를 유민신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자각적으로 전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정서가 있어야 한다.<sup>10)</sup>고 스스로에 대한 신분 인정과 자발적인 전 왕조에 대한 충성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유민의 신분과 정서만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다소 모호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행위와 활동만으로도 유민을 정의내리는 것도 온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명의 쇠퇴와 멸망, 만주족의 침입, 내란과 수십 년 간의 혼란 상태에서 유민들은 여러 가지의 생존방식을 선택하여 길을 걸어왔다. 남겨진 자들로서 새로운 조정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외적인 항거활동은 물론이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 충성 및 도피와 은둔 심지어 분노와 원망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항청, 칩거, 은둔, 유랑, 승려 등 다양한 생존방식으로 살아갔다. 따라서 유민의 정의를 정치적 입장에서 벼슬의 유무로 한정하기 보다는 망국에 대한 그리움, 구국의 의지, 생존을 향한 심리적 요소도 포괄해야할 것이다.

5) “明之亡也，諸生自隱退，誓不出者多矣，久之，變其初之十七八。” 戴名世，「溫榮家傳」，『戴名世集』，北京：中華書局，1986，201쪽.  
 6) 何冠彪，『明末清初學術思想研究』，臺北：學生書局，1991，105쪽.  
 7) “凡懷道抱德不用於世者，皆謂之逸民；而遺民則惟在廢興之際，以爲此前朝之遺也。” 歸莊，『歸莊集』3권.  
 8) 趙園，『明清之際士大夫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289쪽.  
 9) 方勇，『南宋遺民詩人結社研究』，北京：人民出版社，2000，8쪽.  
 10) 王璦玲，〈記憶與徐事：清初劇作家之前朝意識與其易代感懷之戲劇轉化〉，〈<<中國文哲研究通訊>>〉，2004，40.

## 2. 청초 유민결사의 등장

청초 약 10여 년간은 명이 망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남명정권이 아직 강남에서 일정 정도의 세력과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반청복명에 대해 대부분의 유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청초 유민활동은 강렬한 정치적 색채를 띠었고 유민결사의 열정도 최고조에 달했다. 楊鳳苞는 “명 조정이 전복되자 사인들은 초췌해지고 직위도 잃었다. 세속을 떠나 은둔하며 지내는 글을 잘 짓는 문인들이 연달아 시사를 만들어 옛 조정과 군주에 대한 마음을 술회하였다. 양자강 이남에는 유민결사가 없는 곳이 없었다.”<sup>11)</sup>라고 했다.

그러나 순치17년 청 정부는 ‘결사금지(社禁)’를 단행하게 된다. 당시 예과급사중(禮科給事中) 양용건(楊雍建)은 상소문을 올려 “지금 함부로 결사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서 결맹하는 곳이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으며, 그 중 강남의 소주, 송강과 절강의 항주, 가흥, 호주가 가장 심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명분으로 출발했으나 후에는 이를 통해 당을 세워가는 것이 이젠 익숙해져서 풍습이 되었으니 더 이상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청컨대 칙서를 내려 사인들이 받들어 실행하고 사인들을 통제하여 함부로 사단을 세워 사람들을 모아 결맹을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sup>12)</sup>라고 하였다. 이에 순치제는 “사인들의 풍습이 바르지 못하여 결사와 동맹을 맺어 아문을 좌지우지하고 공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선동하여 풍조를 이루고 있으니 몹시 심한 죄악이므로, 이에 금지할 것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노라.”<sup>13)</sup>라는 명을 내렸다. 양용건은 소주, 항주 등의 지역을 결사금지를 시행하는 중점지역으로 하였고 유민결사는 심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반청활동에 참여한 사인들에 대한 통제는 매우 심해지자 유민결사 역시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다. 강남지역의 사사활동은 결사금지로 인해 유민결사의 투쟁성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유민결사는 칩거하거나 산림 속으로 은거하면서 회맹과 관련된 일을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했다.<sup>14)</sup> 급기야 절로 도피하거나, 산골에서 밭 갈며 살거나, 두문불출하며 저술에만 몰두하거나, 벼슬하지 않고 市井과 섞여 살거나 산림 속에 거처하거나 은거하거나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특히 유민 가운데는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sup>15)</sup> 『明遺民錄』을 보면 2000여명의 유민가운데 중이 된 사람은 약 30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약 200명이나 된다고 한다.<sup>16)</sup> 이처럼 유민결사는 격렬한 정치적 투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남명정권의 멸망과 복명투쟁의 실패, 치발령, 주소안 등 청 정부의 고압정책으로 인해 결집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처럼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 만주족의 통치, 청초 주소안(奏疏案)·문자옥 등 정치 문화적

11) “明社既屋，士之憔悴失職，高蹈而能文者，相率結爲詩社，以抒寫其舊國舊君之感，大江以南，無地無之。”『秋室集』1卷 「書南山草堂遺集後」，『叢書集成續編』，臺北，新文豐出版公司，1989，157권，664-665.

12) “今之妄立社名，糾集盟誓者，所在多有，而江南之蘇松，浙江之杭嘉湖爲尤甚。其始由於好名，其後因之植黨，相習成風，漸不可長。請敕部嚴飭學臣，實心奉行，約束士子，不得妄立社名，糾衆盟會，其投刺往來。”『清世祖實錄』132卷，中華書局，1985.

13) “士習不端，結社訂盟，把持衙門，關說公事，相煽成風，深爲可惡，著嚴行禁止。”『清世祖實錄』132卷，中華書局，1985.

14) “自是家家閉戶，人人屏迹，無有片言只字敢涉會盟之事矣。”杜登春，『社事始末』，『叢書集成初編本』，北京：中華書局，1991.

15) “時遺民爲僧者，不可殫紀。”邵廷(金+龍)『明遺民所知傳·張利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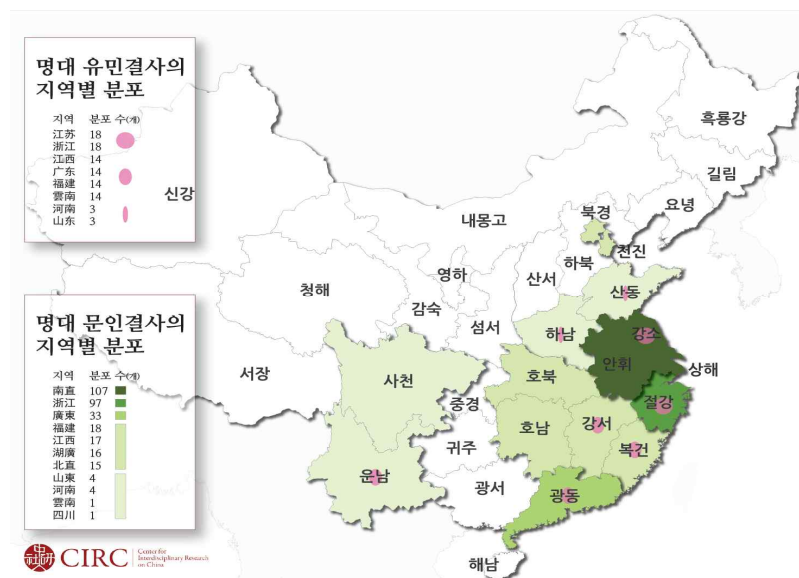
16) 하종미 305쪽.

환경 속에서 명대 유민은 다양한 생존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청초의 고압정책 앞에서 유민들은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서 힘의 결집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결사’는 일종의 생존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3. 강남지역의 유민결사의 특징

유민결사는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송원교체기에 처음 출현한다. 명 유민은 송대 유민에 비해 수량도 많고 영향력도 크며 활동지역도 더 넓다. 명 유민은 謝正光·范金民 『明遺民錄匯輯』에 따르면 약2000여명에 달한다.<sup>17)</sup> 하종미의 연구에 따르면, 명말청초 문인결사는 313개이며, 그 지역적 분포를 보면 南直(강소·안휘·상해 일대) 107개, 浙江 97개, 廣東 33개, 福建 18개, 江西 17개, 湖廣(호북·호남 일대) 16개, 北直(북경·천진 일대) 15개, 山東·河南 각4개, 雲南 1개, 四川 1개의 순이다. 이 가운데 200여개는 강남지역에 분포해있다. 청대 강남지역의 문인결사는 약200여개이며, 이 가운데 청 순치에서 강희 초까지의 문인결사는 약70여개이다. 그 중 유민결사는 약50개가 넘으며 주로 蘇州, 常州, 松江, 鎮江 4府 등 강남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다.<sup>18)</sup>

<그림1> 명대 문인결사와 유민결사 분포도



출처: 何宗美, 『明代文人結社研究與文學流派研究』의 자료에 근거하여 그림

<그림1>에서 같이 명대 문인결사의 분포와 유민결사의 분포가 공히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나라 때 송대의 유민결사는 주로 남송의 고도 항주를 주축으로 하는 절강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 유민결사 역시 명대의 고도 남경을 주축으로 하는 강소 일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청대 유민결사는 강소를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절강·북진·광둥 일대로 확대되고,

17) 周于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참고.

18) 강남지역은 크게는 장강 중하류지역 즉 강소, 안휘, 상해, 절강, 호남, 강서 6성을 포함하며, 주로 강소성에 속한 江寧, 鎮江, 상주, 소주, 송강, 太倉 直隸州 및 절강성에 속한 항주, 가흥, 湖州 3府지역을 의미한다.

서쪽으로는 강서·안휘·호남 일대로, 북쪽으로는 산둥·하북으로, 서북쪽으로는 산서·섬서 등의 전국적인 분포를 형성하였다.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분포는 송대 유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모두 여전히 강소·절강 일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청초 유민결사는 구성원이 모두 유민인 경우는 53개, 일부만이 유민인 경우는 11개이다.<sup>19)</sup> 전자의 지역적 분포는 남방 지역에는 강소18개, 절강18개, 강서·광둥·북건·운남 14개가 있고 북방 지역에는 하남·산둥에 3개가 있다.

<표1> 청초 강남지역의 주요 유민결사

번호	결사명	설립시기	구성원	활동지/근거지	비고(성향 등)
1	懷忠社	順治2년	朱襄孫, 嚴而杰, 方用晦 등	上海	정치성
2	迨社	順治3년	張佳圖 등	江陰	정치성
3	毛晉結社	順治4년	毛晉, 孫永祚, 楊彝, 曾同	常熟, 昆山	
4	蓮社	順治4년	陳瑚, 陸世儀, 江士韶, 聲敬 등	太倉, 昆山	강학성, 詩文性
5	水村讀書社	順治5년	陸世儀, 陳瑚 <sup>20)</sup> , 江士韶, 聲敬, 王育 등		강학성
6	愼交社	順治6년	宋實穎, 侯汾, 侯涵, 陸圻, 顧有孝, 顧湄, 尤同, 計東 등	蘇州, 松江	杜登春 소주에서 滄浪合局(1649)창립->두등춘, 章在茲 소주, 송강, 태창으로 확대->내부 갈등->愼交社, 同聲社로 분리
7	同聲社	順治6년	章在茲, 陸慶臻, 王發, 王昊, 陸慶曾, 章本練, 盧元昌, 王溥, 顧鏞之 등	蘇州, 松江	상동
8	驚隱詩社	順治7년~康熙3년	葉繼武, 归庄, 顧炎武, 戴笠, 陈济生, 潘柽章, 朱鶴齡 등 약50명	吳江(항주, 가흥, 호주)	시문, 정치, 학술 順治5년이라고도 함.
9	菴斐堂社	順治9년	王揆, 陸世儀, 陳瑚 등	太倉	강학, 정치성?
10	侯方域宜興詩會	順治9년	侯方域 <sup>21)</sup> , 陳貞慧, 陳維崧, 陳宗石, 任源祥 등	宜興	정치성
11	十郡大社	順治10년	吳偉業, 宋實穎, 彭瓏, 尤同, 徐孚遠, 顧宸, 陸圻, 侯涵, 計同 등	蘇州, 松江	신교사와 동성사의 내부 모순->吳偉業 소주, 송강 등 7府 문인들과 연합. 주로 신교사, 동성사 회원
12	雲門社	順治11년	秦保寅, 顧貞觀, 安璿, 顧景文 등 10명	無錫	정치성?
13	假我堂文宴	順治11년	錢謙益, 歸莊, 朱鶴齡, 侯汾, 金俊明, 葉襄, 陳三島, 張奕 등	常熟, 昆山, 吳江, 長洲	사회
14	原社	順治11년	杜登春, 張淵懿, 施樟, 顧開雍 등	松江	
15	丁酉社	順治14년	潘陸, 李楷, 孫枝蔚 등	吳江, 鎮江	
16	佳日社 = 尙	順治 初	毛晉	常熟, 昆山	怡老性/故老耆儒들과 결

19) 周于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참고.

20) 如皋에서 冒襄 등과 水繪園을 결성.

	齒社				사
17	棠溪詩社	順治 初	王光承, 金是瀛, 吳懋, 吳騏, 王溥, 王烈 등	松江	정치성/ 청 조정에 벼슬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음
18	顧有孝結社	清初	顧有孝, 吳旦, 沈世楙, 周安, 潘陸, 俞南史, 顧樵 등	昆山, 蘇州府(吳江)	문학성, 정치성?
19	千齡社	清初	丘上儀 등		고령자, 은거불사
20	西郊吟課(社)	清初	馮樾, 王光承, 吳騏, 張若羲 등		정치성?
21	東臯詩社	清初	王光承, 吳騏, 金是瀛 등		정치성? 詩酒唱和?
22	小蘭亭社	清初	曹銓仙, 曹勛 등 12-16명	華亭	가족성 결사, 난정의 유상곡수
23	韓馨結社	順治~康熙初	韓馨, 顧頊, 鄭敷教, 張溥, 金俊明 등		顧頊結社라고도 함 禪院에서 선학공부
24	陸志熙結社	不詳	陸志熙, 歸莊, 王晨, 吳喬 등	長洲	
25	翁遜結社	不詳	翁遜, 戴笠, 顧有孝 등		西郊吟社라고도 함
26	沈自鋌結社	不詳	沈自鋌, 沈自炳 등	吳江	정치성/항정활동을 하다가 沈自炳 강물에 투신 자살, 沈自鋌 은거
27	湄浦吟社	康熙3년	陳瑚 등 약40명	太倉	詩酒唱和
28	北郭詩會	康熙3년	林古度, 杜濬, 陳維松, 龔賢, 孫默, 李遴 등	揚州	
29	婁東十老會	康熙10년	陳瑚, 陸世儀, 盛敬, 江士韶, 宋龍, 顧士璉, 王撰, 王育 등		강학/ 정치성?->怡老性
30	江干五老會	康熙12년~康熙17년	杜濬, 余懷, 錢澄之, 曾燦, 錢肅潤 5명.	常州府(江陰)	정치성
32	周燦結社	不詳	周燦 등		
32	顧夢游結社	不詳	顧夢游, 王潢, 吳時德 등		은거
33	陳濟生結社	不詳	陳璧, 王予安, 史趾祥, 侯彥德, 潘非眉, 徐乾學 등		
34	西湖八子社	不詳	陸宇火+鼎, 毛聚奎, 董德脩, 紀五昌 등 8명	浙東 甬上(浙江 慈溪, 鄞縣)	月泉諸老 추종

출처: 참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재정리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초 강남유민결사의 성격적 유형이 절대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강한 결사가 많았다. 회충사, 충성사, 경은시사가 그리하다. 특히 경은시사는 清初 三案(곡묘안, 주소안, 庄廷鑑明史案)<sup>22)</sup>과 문자옥(庄廷鑑明史案)으로 인해 구성원인 오염, 반정장 등이 연루되어 살해되기도 했으며, 비교적 투쟁성이 강한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결사이다. 또한 棠溪詩社는 “청 조정에서 벼슬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sup>23)</sup>라

21) 宜興에서 賈開宗, 徐作肅, 徐隣唐, 徐世深 등과 울분의 마을을 시 창작에 기탁하며, 雪苑社를 결성. 王文榮, 「清初江南遺民結社研究: 以蘇·松·常·鎮四府為考察中心」,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1, 第4期, 119쪽.

22) “江南奏銷案”, “哭廟案”, “通海案”, 合称“江南三大案”. 順治末年, 一连串发生的“丁酉科场案”, “通海案”, “江南奏销案”, “哭庙案”, “庄廷鑑明史案”是清人入关实行“异族统治”必然的结果, 所谓“朝廷有意与世家有力者为难, 以威劫江南人也.”(《研堂见闻杂记》)。

23) “凡已仕者不與.” 王豫, 『江蘇詩征』43卷, 道光元年焦山海西庵詩征閣刻本.

는 참가 조건을 제시할 정도 유민의 뜻을 굳게 지키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결사로서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쟁의 색채가 적으며 주로 詩文을 주고받으면서 유민의 통한과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특징이다. 陳瑚 등이 결성한 蓮社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연사는 시문을 주고받으며 그것을 시문집 『頑潭詩話』를 엮어내기도 했다. 또한 강학적인 성격이 강한 결사로 水村讀書社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단들은 강학, 독서 및 시문화답 등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청초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적 특징은 명말 문인결사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문인결사활동이 빈번한 지역은 유민결사도 빈번했다. 소주, 송강 등의 강남지역은 문인결사의 전통이 깊은 곳이며 유민결사 또한 활발한 곳이었다. 또한 청초 蘇州府, 松江府 및 常州府의 宜興, 江陰 등은 명말청초 시기 항청 투쟁이 격렬한 곳이었으며 유민결사의 활동도 활발했다.

이처럼 청초 강남유민결사활동은 비교적 강한 지역적 성격을 지닌다. 문인결사활동이 빈번한 지역은 유민결사도 빈번했다. 소주, 송강의 문인결사의 전통이 깊은 곳으로 유민결사 또한 활발한 곳이었다. 또한 항청 투쟁이 격렬한 지역은 유민결사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소주부, 송강부 및 상주부의 의흥, 강음 등은 명말청초 시기 항청 투쟁이 매우 격렬한 곳이었고 이러한 지역의 유민결사의 기풍도 매우 농후했다. 특히 소주부의 오강은 명이 망한 후 沈自炳, 沈自鈺, 吳易, 吳振遠 등 많은 사람들이 의군을 조직하여 항청 활동을 펼쳤다. 경은시사의 吳宗潛, 吳宗漢, 吳宗泌 3형제는 직접적으로 항청 활동에 참여하였다.<sup>24)</sup>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청초의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청초의 결사의 성격과 구성원들이 일부 명말 정치적 성향이 강한 문인결사와 계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 청초 유민결사의 구성원의 신분으로 볼 때, 명대 복사, 기사 혹은 동림당의 성원들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복사, 기사, 동림당의 사인들은 절개가 굳고 투쟁정신은 청초 유민들에게 영향을 주어 복명항청 활동을 하고, 나아가 고국에 대한 충정과 절개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자원이자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표2> 유민결사와 명대 문인결사와의 연계

	인원	관련 유민결사
복사	毛晉, 孫永祚, 楊彝, 曾同	毛晉結社
	歸莊	驚隱詩社
	王揆, 陸世儀, 陳瑚	葦斐堂社, 蓮社, 水村讀書會
	侯方域	侯方域宜興詩會, 雪苑社, 江干五老會
	金是瀛, 吳騏, 王烈	棠溪詩社
	顧有孝(복사성원 陳子龍의 문인)	驚隱詩社, 顧有孝結社
기사	王光承	東臯吟社, 西郊吟社
동림당	顧景文(동림당 顧憲成의 증손)	雲門社
	侯汧, 侯涵(동림당 侯垞曾의 아들)	慎交社

출처: 참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재정리

하지만 청초 유민결사는 비교적 유동적이고 규범적이지 않다. 명대의 문인결사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조직의 핵심인물(社長·盟主), 조직 규칙(社約), 모임 장소 및 경비 등 운영체계를 갖춘 결사들이 많았다. 社長은 주로 벼슬에서 물러나 시 창작으로 명성이

24) 오종삼은 “신유년 허국에게 몸을 던져 동생 종한, 종필과 서로 군영을 오가며 여러 차례 어려움을 넘겼다申西奮身許國, 與弟宗漢, 宗泌往來兵間, 數蹈危難” 潘柽章, 『松陵文獻』10권,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書刊本』,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있는 원로, 요직에 있는 고급관료, 학문적으로 뛰어난 문인, 사람의 영수 등이 맡았다. 社約은 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작품 내용·장소·모임형태·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경비문제는 공경대부들이 후원해주거나 회원이 돌아가면서 준비하거나 회비를 거두기도 했고, 절과 서원의 찬조를 받거나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사전(社田)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초 유민결사는 상대적으로 조직, 활동 면에서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3> 유민결사 구성원의 중복 가입

결사구성원	중복가입
경은시사	顾有孝: 驚隱詩社, 西郊吟社, 慎交社, 翁遜結社, 顧有孝結社, 吳江結社, 昆山結社
	戴笠: 驚隱詩社, 西郊吟社, 翁遜結社
	归庄: 驚隱詩社, 假我堂詩會, 陸志熙結社, 常熟結社(吳喬)
	潘陸: 驚隱詩社, 顧有孝結社, 丁酉社
	周灿: 驚隱詩社, 周燦結社
	钱肃润: 驚隱詩社, 江干五老會
	朱鹤齡: 驚隱詩社, 假我堂詩會
	陈济生: 驚隱詩社, 陳濟生結社
	周安: 驚隱詩社, 顧有孝結社
	顧樵: 顧有孝結社
기타 결사구성원	-王光承: 求社·雲間七子社, 西郊吟社, 東臯詩社, 棠溪詩社, 棠溪詩社
	-陳瑚: 蓮社, 水村讀書社, 茱萸堂社, 婁東十老會, 湄浦吟社
	-陸世儀: 蓮社, 水村讀書社, 茱萸堂社, 婁東十老會
	-吳騏: 西郊吟社, 東臯詩社, 棠溪詩社, 棠溪詩社
	-徐孚遠: 求社·雲間七子社, 海外幾社
	-杜濬: 重九會, 北郭詩會, 江干五老會
	-江士韶: 蓮社, 水村讀書社, 婁東十老會
	-盛敬: 蓮社, 水村讀書社, 婁東十老會
	-金是瀛: 東臯詩社, 棠溪詩社
	-侯方域: 侯方域宜興詩會, 雪園續社
	-侯枋: 慎交社, 假我堂文宴, 十郡大社
	-侯涵: 慎交社, 十郡大社
	-徐乾學: 十郡大社, 陳濟生結社
	-陸圻: 慎交社, 十郡大社
	-金俊明: 韓馨結社, 假我堂文宴
	-毛晋: 毛晋結社, 佳日社

출처: 참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재정리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효, 귀장, 왕광승, 육세의 등은 여러 개의 유민결사에 동시에 참여하였다. 潘陸은 경은시사에 참여하였으나 또 江陰의 丁酉社에 성원이었다. 陳瑚는 연사, 수촌독서사, 湄浦吟社, 婁東十老會 등의 성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개방적이고 유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집단 간의 결속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예로 대부분의 유민결사는 결사의 지속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다. 예를 들어, 후방역의흥시회는 후방역이 의흥을 떠난 후 바로 해체되었다. 江干五老會 역시 5명의 유민들이 강음에서 만들었는데, 한둘씩 강음을 떠나면서 해체되었다. 이처럼 일반 문인결사와 비교해볼 때 대다수의 유민결사는 상대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반청복명 활동을 함과 동시에 고압 정치에 직면해야했고, 또 유민들의 초심이었던 청조에 벅슬하지 않고 산림에 은거하며 산다는 입장이 강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보인 사회적 영향력, 삶의 생존방식과 창작활동 면에서는 일반 문인결사와는 다른 개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보니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일반 문인결사보다 더욱 열정적이

고 활동적이었으며, 한편 유민이자 문인으로서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더욱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

이상의 청초 강남 지역의 유민결사의 지역적 특징을 원대 송 유민결사와 비교해보아도 거의 유사한 점이 드러난다. 원대 초기와 청나라 초기에 형성된 송나라, 명나라 유민들은 이민족의 통치를 받았던 중국 유민 역사상 절정기를 이루었다. 원초의 송대 유민들은 고도 杭州를 중심으로 주로 浙江, 安徽, 江西, 福建 일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청초의 명대 유민들은 南京을 중심으로 南京, 苏州 일대에서 苏州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한편 남으로 浙江, 福建, 广东으로 확장하고, 서로 安徽, 江西, 湖南으로, 북으로 山东, 直隶, 山西, 陝西 등지로 활동 영역을 넓혔으며 송대 유민보다 상당한 유동성, 확장성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문학가들의 분포에서 동일하게 드러난다.<sup>25)</sup> 청대문학가의 지역적 분포 역시 명대 문학가분포에서도 유사하다. 강소·절강·강서·안휘·상해 4개 성시의 장강 삼각주 일대의 문학가는 총1,184명으로 청대문학가 총1,744명 가운데 67.89%를 차지하고 있다. 좀 더 들여다 보면, 강소는 蘇州府(178), 常州府(134), 揚州府(64), 松江府(60) 등에, 절강은 杭州府(173), 嘉興府(93), 紹興府(58), 湖州府(44) 등에, 강서는 南昌府(25), 撫州府(22), 建昌府(21) 등에, 안휘는 安慶府(40), 徽州府(32), 寧國府(15) 등에, 산둥은 濟南府(35), 青州府(23), 萊州府(11) 등에 분포해있다. 모두 남방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吳越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청대와 원대는 이민족의 통치 속에서 두 왕조가 수도를 모두 북경에 두었으며, 송대와 명대는 남방의 吳越 지역 내에 하나는 杭州에, 하나는 南京에 각각 수도를 두었다. 청초 유민집단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杭州와 南京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귀속감이 더 컸을 것이다. 따라서 강남지역은 모종의 ‘지역적’ 성격을 띠기도 하고 문인들의 ‘정신적’ 도시로서의 상징성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과 주강유역의 지역의 인문환경은 문인결사 외에도 유민결사, 문인출신지, 역대 장원배출, 서원의 분포, 출판업의 성행 등의 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명·청시기 장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 및 주강 일대 지역은 중국 고대 인문학의 흥성지로서 지식인의 출현, 지식담론과 유파, 지식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 Ⅲ. 경은시사의 활동과 특성

#### 1. 경은시사의 형성과 성격

경은시사는 叶继武와 吳宗潛, 吳宗漢 형제가 주축이 되어 順治 5년(1648)년 혹은 7년(1650) 설립하였다.<sup>26)</sup> 강희3년까지 약15-17년 정도 유지해온 청초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유민결사 중의 하나이다. 경은시사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문학에 능한 사람들이 잇달아 시사를 결성하여 옛 나라와 옛 군주에 대한 감회를 표현하였다. 강남에는 시사가 없는 곳이 없었으며 가장 성행한 곳으로 東越에 甬上이 있고 三吳에는 松陵이 있

25) ‘明·清代著名文學家籍貫地域分布’는 譚正璧의 『중국문학가사전』과 曾大興의 『중국역대문학가의 지리분포』에 실린 명대문학가 1,401명 가운데 출신지역이 명기된 1,342명과 청대문학가 1,806명 가운데 출신지역이 명기된 1,744명에 대한 지역적 분포이다.

26) “太湖 叶桓奏(엽세무)는 왕조가 교체된 후 唐湖 北渚 古風庄에 은거했으며 그곳에는 안개와 대나무가 많았다. 吳東籬 형제와 함께 경은시사의 리더였다.”

다.……남동쪽 도회지인 松陵은 사방에서 우수한 군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越中에 비해 더 흥성했다. 이곳에서 '경은시사'는 吳社의 으뜸이다.<sup>27)</sup>

국초에 오읍의 은자가운데 중 문학에 능한 자들이 함께 경은시사를 만들자 사방에서 동지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난이 평정된 지 4, 5년이 되었다. 그 시작점을 추적해 보면 대략 순치 경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국의 유민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함께 산림에서 은둔하면서 한가로이 술을 마시며 시문을 지었다. 짚신을 신고 삿갓을 쓰고 늘 오호삼요 사이를 오가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검문하지도 않았다.<sup>28)</sup>

오종잡은 오흥[호주] 심조효, 범풍인, 가화 금와, 주림 및 같은 읍의 엽계무, 오가 등과 '경은시사'를 결성하였다. 은거하며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이 다들 모였다.”<sup>29)</sup> “엽계무는 오흥 심조효, 범풍인, 동읍의 오종잡, 반정장 등과 함께 '逃社'를 발기하여 歲寒交라고 하였다. 일시에 3吳(엽계무, 오종잡, 반정장)는 唐湖를 武陵, 柴桑이라 가리켰다.”<sup>30)</sup>

경은시사의 구성원은 대부분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며 벼슬하지 않고 산림에서 은둔하며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逃社', '逃之盟' 또는 '寒盟'이라고도 한다. '逃'란 은둔 생활을 하며 벼슬에 단념하고 난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구성원은 약 50명 정도이며 모두 “세속을 떠나 은둔하며 지내는 글을 잘 짓는 사인”들로 구성되었다.

경은시사의 구성원은 총 50명으로 절반 이상이 江苏 吳江 사람이다. 구성원 간에는 같은 고향 출신도 있고 가족 관계이거나 스승과 제자 관계도 있다. 경은시사 구성원들은 주로 친인척, 동향 및 인접지역이 많으며 사제 관계도 있다.<sup>31)</sup> 경은시사 구성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주로 江苏, 浙江 두 성에 집중되어 있다. 시사 발상지인 吳江 출신 구성원만 27명으로 시사 총 인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시사 구성원 사이에 동향 관계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부자, 형제, 삼촌/조카 관계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다. 가족 구성원은 吳氏(7인), 叶氏(3인), 周氏(3인), 顧氏(2인), 朱氏(2인), 顔氏(2인), 金氏(2인) 총 21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 7가문 모두 吳江 출신이다.<sup>32)</sup> 이 가운데 경은시사의 창립멤버이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주로 吳氏(吳宗潛, 吳宗漢, 吳炎 형제), 叶氏 叶继武이다. 앞서 杨凤苞가 경은시사를 '吳社之冠'이라고 한 이유는 시사 발상지인 吳江에 인재가 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향 관계, 친족관계는 시사 내부 관계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어 구성원 간에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경은시사의 활동은 문학 활동을 위주로 하며 정치활동은 주요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하였다. 경은시사는 단순히 문학성 결사만은 아니며 그렇다고 정치적인 색채만 드러내는 결사도 아니다. 학술 활동과 정치 활동은 종종 문학 활동과 함께 교차하는 활동을 하였다. 좀 더 나

27) 杨凤苞, 『秋室集』1권, 「书南山草堂遗集后」.

28) “國初, 吳邑之高蹈而能文者, 相率爲‘驚隱詩社’, 四方同志咸集……於時定亂已四五年, 迹其始起蓋在順治庚寅, 諸君以故國遺民絕意仕進, 相與遁迹林泉, 優游文酒, 芒鞋箬笠, 時往來於五湖三泖之間, 而執法之吏不相誰何.” 乾隆『震澤縣志』三十八卷, 『中國地方志集·江蘇府縣志輯』第23冊, 340쪽. 五湖는 洞庭湖·鄱陽湖·太湖·巢湖·洪澤湖. 三泖는 泖湖(현재 상해 松江현 서쪽)를 말한다.

29) “吳宗潛與吳兴沈祖孝, 范风仁, 嘉禾金瓠, 朱临, 同邑叶继武, 吳珂等結‘驚隱詩社’, 士之高蹈而能文者胥集焉.” 潘怪章 等, 『松陵文獻』10권, 「人物志·隱逸」‘吳宗潛’, 『續修四庫全書』, 541책, 487쪽.

30) “叶继武與吳兴沈祖孝, 范风仁, 同邑吳宗潛, 潘怪章等舉‘逃社’, 爲歲寒交, 一時3吳高士莫不指唐湖爲武陵柴桑焉.” 凌淦『松陵文錄』17권, 「高蹈先生傳」, 同治十三年甲戌(1874)刻本.

31) 사제 관계로는 吳宗潛, 吳宗泌와 叶數夏 그리고 吳宗潛과 金始桓이 있다.

32) 吳氏 7명은 吳宗潛, 吳宗漢, 吳宗泌, 吳宗沛, 吳宗, 吳炎, 吳南杓. 이중 吳宗潛, 吳宗漢, 吳宗泌, 吳宗沛, 吳宗 5인은 형제간이고 吳宗는 상기 6명의 조카이고 吳南杓은 吳炎의 동생이다.

아가 말하자면, 경은시사는 여가생활로서의 친목적인 유로들의 雅會도 아니고 또 詩文만을 주고받으며 창작에만 몰두하는 시인들의 詩會만도 아니며, 과거를 준비하는 講學性 모임도 아니며, 정치적 활동을 주로 하는 黨社의 성격을 띤 결사도 아니다. 경은시사는 청초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크게 반청투쟁과 문헌저술과 시문창작을 주요 활동으로 한 일반적인 문인결사이자 시대적 특수성을 띤 유민결사이다.

경은시사의 집회에 대해 乾隆『震澤縣志』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매년 5일 굴원에게 제사를 지내고 9일 도연명에게, 추석에는 林君復, 鄭所南에게 제사를 지낸다.”<sup>33)</sup> 정기적인 집회 시기는 주로 매년의 단오, 중앙절이다. 집회는 굴원, 도연명, 임포, 정사초 4인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후 시문을 창작한다. 집회 장소는 엽계무의 古風莊, 歲寒齋에서 가장 많이 모였고 다른 구성원의 거처에서도 모임을 가졌다.<sup>34)</sup>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집회의 횟수는 매년 최소 1회이며 총 21회를 가졌고 단오와 중앙절에 많이 모였다.<sup>35)</sup>

명나라가 망한 후 남방에서는 잇달아 후속 정권이 세워졌다. 그중 영력 정권은 청나라 순치 18년(1661)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 반청복명의 투쟁이 일어났고 유민결사 역시 이와 호응하게 등장하였다. 경은시사는 집단적으로 뚜렷한 반청복명의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구성원들은 반청에 대한 태도를 표출했다. 이를 테면 개명을 하거나 작품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거나, 과거응시 포기, 효릉(孝陵) 참배, 강희제의 박학홍유과 추천거부 등 자신들만의 행동으로 정치 관련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고염무와 귀장, 오종잠, 오종필 등은 경은시사 설립 전부터 반청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개명한 이유는 청나라의 추적과 체포를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외에도 고국 명나라에 대한 충정을 간직하기 위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중에 고염무는 蔣山侗이란 이름을 사용했는데 ‘장산’은 현재 남경에 있는 鍾山(紫金山)으로 고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侗’은 종이란 뜻으로 장산용은 명나라의 관리, 종이란 의미이다.<sup>36)</sup> 둘째, 연호는 한 정권을 대표하며 연호의 흥망은 한 정권의 흥망을 나타낸다.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은시사의 일부 구성원들은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거나 干支紀年 등의 표기법을 사용했다. 귀장은 남명연호를 사용하였고 판정장, 주찬, 왕석천 등은 간지기년 표기법을 사용하였다.<sup>37)</sup> 셋째, 박학홍유과에 응하지 않았다. 강희 17년(1678) 년에 명나라 유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강희제는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학식과 품행이 우수하고 문학에 특출한 사람은 벼슬을 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간에 경성에서는 3품 이상과 科道官에 명하고 경성 밖에서는 督撫布按으로 임명할 것이다. 각기 아는 사람들을 천거하면 짐이 직접 임명할 것이다.”<sup>38)</sup> 당시 유민들은 잇달아 천거에 응하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경은시사는 당시 해산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구성원들 가운데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여서 고염무, 전숙윤, 주학령, 고유호 등이 천거의 명단에 올랐지만 거절했다.

## 2. 학술활동과 경은시사의 침체

33) 周于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참고.

34) 潘柽章의 韭溪草堂, 周灿의 南園, 沈永馨의 通暉樓, 周尔兴의 蓬萊閣, 沈嘉楠의 東園, 陳濟生의 遠輝堂, 王錫闡의 困亨齋, 錢肅潤의 十峰草堂, 顧有孝의 北郭草堂 등이 있다.

35) 周于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참고.

36) 吳宗潛의 본명은 系이고 자는 萬輪이다. 명나라가 멸망 후 宗潛으로 개명했고 자를 東里(東籬)로 고쳤다. 陶潛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37) 江庆柏 「明清时期年号纪年法的规避」, 『文史知識』, 2003, 제7기, 83쪽.

38) “凡有學行兼優, 文詞卓越之人, 不論已仕未仕, 在京三品以上及科道官, 在外督撫布按, 各舉所知, 朕親自錄用.” 『清實錄·聖祖仁皇帝實錄』71卷 「康熙十七年正月乙未」, 中華書局, 1986, 910쪽.

경은시사의 학술 활동은 문학 활동처럼 빈번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적다. 경은시사의 일부 구성원들은 사학, 경학, 문학, 예술, 천문 등에 조예가 깊었다. 그들의 학술활동을 통해 경은시사의 역사적, 정치적 성향이 잘 드러나며, 경은시사가 소멸하는 결정적인 사건도 생겨났다.

학술 활동은 경은시사가 사라진 이유와 연관되었다. 건륭『震澤縣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 역사사건에 연루되어 이 시사에 법에 저촉된 자가 있어 마침내 시사의 집회가 중단되었다.”<sup>39)</sup> 여기에서 ‘역사사건’이란 강희 2년(1663)에 발생한 庄廷鑑 ‘明史案’을 말한다. 경은시사의 구성원 오염, 반정장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항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경은시사의 구성원인 戴笠(耘野)이 반정장을 위해 쓴 「潘力田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반정장은…… 여러 역사서 가운데 사마천의 책이 가장 조리가 있다고 여겼다. 후인들이 대부분 그 뜻을 잃자 반정장은 이를 모방하여 『명사기』를 쓰고자 했고, 친구 오염의 견해도 대략 이와 같아서 함께 쓰기로 했다. 반정장은 각각 본기와 지를 쓰고, 오염은 각각 세가와 열전을 썼다. 연표와 역법은 왕석천이 말았고 유구지 내(대림)가 말했다. 사가에서 실록을 얻기가 가장 어려워 반정장은 재산을 털어 책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곤산의 고염무, 강음의 이손지, 장주의 진제생은 전고에 뛰어났으며 집에 장서가 많아 가져와 도움을 주었다. 반정장은 고증에 능했고 오염은 서사에 능하여 상호 토론을 하였다.……수년간을 집필한 끝에 이미 6,7할을 완성했다. 그런데 남십의 장정룡의 역사 사건이 일어났다. 반정장과 오염이 교열자의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 난을 만나게 되었다. 장정룡의 책은 대신 주극정의 『사개』를 초본으로 하여 명사들과 함께 완성했다. 책이 완성된 이후 두 사람은 그 책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연루되어 마침내 참혹한 변을 당했다.<sup>40)</sup>

대림도 『명사기』의 편찬자 중 한 사람이다. 『명사기』 편찬은 경은시사의 중요한 학술 활동 중 하나이다. 장정룡 사건이 터진 후 『명사기』 편찬 작업도 부득이 중단되었고 이미 완성된 부분도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책에 올라온 18인은 모두 사형되었고 총 70여명이 사살되었다.<sup>41)</sup> 경은시사는 이 사건 이후 시사의 집회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청 정부는 강남 인사들의 세력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순치 말부터 ‘주소안(奏銷案)’, ‘곡묘안(哭廟案)’, ‘사단결성금지’ 등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사단결성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순치 9년(1652) 예부에서 상주하여 8개 조항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그중 제8항에 “생원들은 당을 지어 사람을 모으거나 사단을 결성할 수 없다.” “지은 글은 함부로 간행할 수 없다.”<sup>42)</sup>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순치 17년(1660)

39) “其後史案株連，同社有罹法者，社集遂輟。” 乾隆『震澤縣志』三十八卷，『中國地方志集·江蘇府縣志輯』第23冊，340쪽.

40) “潘梈章……謂諸史惟馬遷最有條理，後人多失其意，欲仿之作『明史記』，而友人吳炎所見略同，遂與同事。梈章分撰本紀及諸志，炎分撰世家列傳，其年表歷法則屬諸王錫闡，流寇志則笠任之。私家最難得者實錄，梈章鬻產購得之，而昆山顧炎武，江陰李遜之，長洲陳濟生皆熟於典故，家多藏書，并出以相佐。梈章長於考核，炎長于敘事，相互討論……撰述數年，其書既成十之六七，而南潯莊氏史獄起，參閱有梈章及炎名，俱及於難。莊氏書以故閣臣朱國禎『史概』爲粉本，自與苕士共足成之。刻成，兩人未嘗寓目，徒以名重爲所摭引，遂罹慘禍。”

41) “列名於書者十八人皆論死”，“殺七十餘人” 顧炎武，『顧亭林詩文集·亭林文集』5卷，「書吳潘二子事」，中華書局，1983，115쪽. 이 사건으로 경은시사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오염과 반정장이 연루된 것 외에도 吳宗潛도 영향을 받았다. 장정룡은 오종한과 고염무에게도 편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이 거절하여 명단에 오르지 않아 다행히도 난을 면하게 되었다. 경은시사는 이 사건 이후 시사의 집회를 중단하게 되었다.

42) “生員不得糾黨多人，立盟結社”，“所作文字，不許妄行刊刻” 道光『欽定國子監志』1「聖諭天章」3책，

예과급사중(禮科給事中) 양옹건(楊雍建)은 <嚴禁社盟疏>를 상주하였다. “현재 함부로 사단을 세워 사람들을 모아 맹서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으며, 특히 강남의 소주, 송강, 절강의 항주, 가흥, 호주지역이 가장 심합니다. 처음에는 명성을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당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學臣들은 실로 이를 금지하고 함부로 사단을 세워서는 안 되며 왕래를 금하고 또한 동사니 동맹이니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청합니다.”<sup>43)</sup> 이로써 사단 활동이 가장 빈번했던 절강, 강소 지역의 문인결사 활동이 절정에서 점점 하향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장정룡 사건과 사단결성 금지 등에 따라 경은시사는 공식적인 활동을 접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sup>44)</sup> 게다가 오종한, 엽세동(叶世洞), 오채(吳案), 오염, 반정장, 금와(金瓿) 등 일부 구성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타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갔다.<sup>45)</sup>

그 후로 경은시사는 더욱 외부와 단절하고 세상사를 논하지 않으며 지냈다. 경은시사의 창립자 엽세무는 오염, 반정장이 변을 당한 후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다. 두 문불출하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다. 복숭아, 국화를 심고 글을 쓰며 스스로 즐겼다.”라고 하였으며, 뉴개(鈕槩)는 “시냇가에 누대를 짓고 주변엔 대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는 굴을 심었다.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스스로 세상과 단절했다.”라고 말하였고, 종흠립(鍾欽立)은 “가난을 달가워하며 절개를 지켰고 세상일을 논하지 않으며 시문을 지어 스스로 즐겼다.”<sup>46)</sup>라고 하였다. 경은시사의 구성원들은 원래부터 ‘문학에 능하며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산림에 은거하거나 두문불출로 칩거하면서 시를 짓고 농가의 일을 즐기며 살았다. 그리고 당시 유민가운데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경은시사 구성원 가운데도 출가하여 승려가 된 자가 있었다. 대립(耘野)은 秀峰山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 선종의 교리를 배우기도 했고, 戴笠(曼公)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고유효는 출가를 하진 않았지만 세상을 뜰 무렵 승려와 잦은 교류하며 실제로 불가에 의탁하고 지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귀장은 「送筵在禪師至余姚序」에서 “20여 년 동안 세상에 특출한 인재와 절개 있고 강개한 사람 사람들이 불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한 집에서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있는 이도 있었다. 어찌 진정 이교를 좋아해서인가, 부득이해서이다.”<sup>47)</sup>라고 하였다.

#### IV. 경은시사의 시가창작

경은시사 구성원의 시가 창작은 모두 유민 시인들의 창작이다.<sup>48)</sup> 같은 구성원일지라도 개인의 창작 주제와 풍격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경은시사의 성원으로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우국충정, 은거생활 속에서 절개를 지켜나가는 의지를 반영한 주

북경고적출판사, 2000, 3쪽.

43) “今之妄立社名糾集盟誓者，所在多有，而江南之蘇松，浙江之杭嘉湖爲尤甚。其始由於好名，其後因之植黨。請飭學臣實禁，不得妄立社名，投刺往來，亦不許用同社同盟字樣。”謝國貞，『明清之際黨史運動考』，上海書店出版社，2004，252쪽.

44) 언제 정확하게 사려졌다는 문헌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집회한 시간대가 마침 장정룡 사건 이듬해부터 보이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45) 顧炎武는 북경으로 戴笠(曼公)은 일본으로 떠났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은둔생활을 했다.

46) 周于飛，「驚隱詩社研究」，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2012. 18쪽 참고.

47) “二十餘年來，天下奇偉磊落之才，節義感慨之士，往往托於空門，亦有居家髡緇者，豈眞樂從異教哉，不得已也!” 歸莊，『歸莊集』3권，상해고적출판사，2010，240쪽.

48) 경은시사 구성원의 시가작품은 주로 개인시집과 다른 사람의 선본에 수록되어있다. 구성원이 편집한 시가선집은 『驚隱編』，『歲寒集』 등이 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경은시사에서 공식적으로 추송하는 굴원, 도연명 및 정사초와 관련한 시에서 잘 나타난다.

경은시사의 정규적인 집회 내용은 “5월 5일이 되면 삼려대부 굴원에게 제사를 지내고, 9월 9일이 되면 도연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모든 회원들이 다 모이면 모두 시로써 기록하였다.”<sup>49)</sup>라고 하였다. 경은시사가 굴원과 도연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굴원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애국정신을 높이 사고, 도연명은 오곡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은 그의 절개와 다른 조정에서 몸을 굽혀 벼슬하지 않는 정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sup>50)</sup>

## 1. 은거와 절개: 도연명

경은시사는 도연명을 추송하였고 추모 제사를 지낼 때 국화주를 사용하였다. 국화에는 외롭고 차가운(寒姿) 느낌이 있어 경은시사의 시인들은 경은시사를 ‘한맹’이라고 명명하였다. 吳宗潛의 이름을 ‘종잠’, 자를 ‘東籬’, 동생 오종한과 오채의 호를 ‘남촌’, ‘북창’으로 짓기도 했다.<sup>51)</sup> 특히 귀장의 시문은 국화를 주제로 한 작품(咏菊)이 많다. “특히 절개를 지키며 은둔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편안히 지내노라”<sup>52)</sup> “국화를 감상하자니 도연명처럼 되기를 바라노라.” “그윽한 향기 다하자 가을하늘 저물어가니, 곧 된서리 붉은 잎 위에 내려 앉겠네.”<sup>53)</sup> 매년 중앙절이 되면 도연명의 추모제를 지내는 의식은 일부 시인들의 처세태도와 인생의 취향(志趣) 면에서도 도연명에 대한 인정과 앙망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사실 경은시사가 도연명을 추송하는 것은 도연명의 뺏속에 흐르는 두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는 절개와 굳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정신일 것이다. 경은시사에서 “경은”의 ‘은’자는 바로 ‘은둔하면서 벼슬하지 않는다’ 뜻으로 귀장의 필치하의 국화는 일종에 인격화된 이미지로 다가온다.

또 매년 중앙절이 되면 도연명의 추모제를 지내는 의식은 일부 시인들의 처세태도와 인생의 취향(志趣) 면에서도 도연명에 대한 인정과 앙망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경은시사의 시인은 창작 제재 면에서 전원, 산천에 대해 읊은 작품들이 많다. 예를 들어, 顏俊彦 「村居雜興」, 范風仁 「秋日村居詩」, 陳枕 「春日田居」, 顧樵 「竹矯池館」, 「懷徐介白」, 鈕明倫 「題畫竹詩」, 沈祖孝 「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 등이 그러하다. 또한 예술 풍격상 한적하고 淸遠한 풍격을 추구하고자 했다. “흰 머리에 누더기 모자를 꼭 내려쓰고 낚시를 하며 도연명의 「閑居」를 회상하노라.”<sup>54)</sup> “깨끗한 물이 호수에 가득하니 한가로이 노를 젓노라, 도시의 시끄러움 농가에 이르지 않네.”<sup>55)</sup> 위 두 시에서는 모두 ‘閑’의 지취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沈祖孝의 「9일 동리 오종잠과 오래된 누대에 오르다九日同東籬(=吳宗潛)登王老露臺」를 보자.

망리의 두 봉우리 석양빛에 걸려있고 거울처럼 맑은 호수를 보이네. 풍류는 응당 사람 보다 늦게  
늙어가고 타향의 경색을 대하노니 문득 스스로 가련해지는구나. 좋은날 누대에 오르니 일단 그런대

49) “歲於五月五日祀三閭大夫，九月九日祀陶征士，同社藥至，咸紀以詩.” 『秋室集』1권 「書南山草堂遺集後」.

50) 다른 자료에 보면 두보 역시 경은시사의 추송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51) 경은시사 성원인 고염무 역시 「陶彭澤歸里」 작품에서도 도연명의 절개를 칭송하였다. 『顧亭林詩文集』, 『亭林詩集』1권 「擬唐人五言八韻」제6수 「陶彭澤歸里」.

52) “尤與幽人節士爲宜” 『歸莊集』6권 「尋菊記」.

53) “賞玩盡希陶靖節”(「飲翁氏菊花下」), “幽芳縱後秋天老，未許繁霜著葉紅”(「殘菊」). 『歸莊集』3권.

54) “憶得「閑居」陶令篇白頭跛帽垂垂立，憶得「閑居」陶令篇”(「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

55) “新水滿湖閑縱棹，市喧應不到農家”(「秋日村居詩」).

로 좋건만 고인은 술이 없어 처연하겠구나! 흰 머리에 헤진 모자 꼭 늘어뜨리니 도연명의 「한거」가 기억나는구나.<sup>56)</sup>

심조효는 이 시에서는 도연명의 「九日閑居」란 시를 언급한다. 도연명처럼 중양절에 도연명을 흠모하여 동리라고 호를 단 오종잠과 누대에 올랐다. 좋은 경물을 대하노니 술이 없는 것이다. 이 때 도연명의 「九日閑居」(序) “나는 한가로이 살고 있고, 중구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가을 국화가 정원에 가득하나, 막걸리를 구하여 마실 방법이 없다. 쓸쓸히 국화를 감상하면서, 느낀 생각을 말에 기탁한다.”<sup>57)</sup>와 같이, 심조효는 중양절(九日)에 산에 오르고, 막걸리를 구하여 마실 방법이 없는 점을 생각하며 도연명과의 심정과 동질화됨을 느낀다.

이처럼 경은시사 구성원들이 국화를 감상하고 찬송하는 많은 시를 쓴 것도 도연명으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경은시사의 작품 가운데 꽃과 식물을 표현한 것 가운데 ‘菊’ ‘도연명’과 관련된 시 작품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엽계무 「九日，歲寒齋同逃社諸子，祀陶元亮，杜子美兩先生」，沈祖孝「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沈祖孝「擬九日閑居」，吳宗泌「將移居題壁」，顧有孝「和陶寄毛子晉」，周燠「歸田園居」，鈕榮「上巳日鍾菊」，沈祖孝「擬九日閑居」，吳珂「題潛確子採菊圖」，「菊影」，吳宗泌「將移居題壁」 등에서 개별 시인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도연명이 가장 많다.<sup>58)</sup>

좀 더 나아가 식물의 경우 상당히 광범위하다. 예컨대 梅, 蘭, 蓮, 竹, 桂, 菊, 松 등이다.<sup>59)</sup> 이러한 식물에 가탁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경은시가 구성원들이 은거생활을 추구해 온 것과 연관성을 지닌다. 鈕榮는 연꽃은 “복숭아꽃과 오얏꽃의 요염함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눈과 서리의 속임을 받는다.”<sup>60)</sup>라고, 모리화는 “홀로 맑고 차가운 향기를 품으며 스스로만 알 뿐이다.”<sup>61)</sup>라고, 대나무는 “색은 여러 가지 요염한 것을 다투지 않고 절개는 외로운 정절을 짊어진다.”<sup>62)</sup>라고 각각 표현함으로써 연꽃, 모리화, 대나무의 맑은 정신과 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유민으로서 자신의 절개를 지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周燠의 붓끝에서 매화는 ‘절로 담백한 꾸밈으로 뺏속까지 깨끗하다’라로, 난은 ‘품격은 귀한 고결한 선비요, 향기는 차분하게 오래간다.’라고, 모란은 ‘활짝 피지만 國色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은일을 좇아 찬 서리를 이겨낸다.’<sup>63)</sup>라고 각각 표현되었다. 매화와 난을 고결하고도 정절을 지키는 품성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형상에 대해서는 묘사를 하지 않는다. 사물의 외형을 통해 사물의 내면적 함의, 정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咏物시를 사물 묘사에서 시작하여 뜻의 전달로 옮겨가면

56) “望里雙峰夕照懸，一泓如鏡見湖天。風流老去應人後，雲物他鄉轉自憐。佳日有臺聊復爾，古人無酒亦淒然！白頭破帽垂垂立，憶得<閑居>陶令篇。”「驚隱詩社研究」『驚隱詩社成員作品輯考』，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2012. 180쪽.

57) “余閑居，愛重九之名。秋菊盈園，而持醪靡由，空服九華，寄懷于言。”

58) 이후 원문만 제시한 것은 周于飛，「驚隱詩社研究」，「驚隱詩社成員作品集略考」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2012. 145-240쪽 참고.

59) 경은시사 구성원들이 梅, 蘭, 蓮, 竹, 桂, 菊, 松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략 다음과 같다. 梅: 陳濟生「蕪城梅花嶺下拜史相國墓，作開律一首」，吳宗「畫梅歌和吳匡廬」，吳宗漢「聞笛，分得“梅”字」，吳宗漢「咏梅花」. 菊: 鈕榮「上巳日種菊」，吳珂「題潛確子採菊圖」，吳珂「菊影」. 蓮: 戴笠(耘野)「구麗庵道兄營蓮花蕩先塋塋，賦贈」，范風仁「구麗庵道兄營蓮花蕩先塋塋，賦贈」，鈕榮「春分日種蓮」. 竹: 范風仁「竹橋池館」，金瓊「題畫竹」. 桂: 陳濟生「中秋後五日，招同人集遠耀堂桂花下分韻」. 蘭: 周燠「題鄭所南墨蘭卷」 등 있다. 周于飛，「驚隱詩社研究」，「驚隱詩社成員作品集略考」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2012. 145-240쪽 참고.

60) “不隨桃李艷，寧受雪霜欺。”

61) “獨抱寒香只自知。”

62) “色非爭衆艷，節肯負孤貞。”

63) “自是淡妝清到骨” “品因高士貴，馥爲靜時長” “不逐繁華矜國色，却隨隱逸傲寒霜”



서 시의 내용을 더욱 깊게 하여 시의 경계까지 이르게 한다.

이상의 梅, 蘭, 蓮, 竹, 桂, 菊 등은 역대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고결, 충정, 정결 등의 품성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식물들은 경은시사 구성원들의 시문 속에서 그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절개와 고결을 지키는 상징물이 되었으며 자신의 화신이자 벗이 되기도 했다. 물론 시인들이 매화와 국화를 심고 소나무, 연꽃을 심으며 또한 시를 써서 찬송하는 것은 개인의 취미와 생활방식이기도하며, 역대로 많은 시인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경은시사의 공식적인 추송 인물이자 정신으로 내세우는 도연명에 대한 그들의 남다른 사랑은 거듭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모방, 추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이상과 도덕적 지조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품성에 자신들의 마음을 의탁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충정과 고결한 절개를 지키며 청나라에 벼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 2. 우국과 충정: 굴원

청초 명 유민 특히 경은시사는 애국의 시인 굴원에 대해 강한 회고를 하고 있다. 5월 5일 공식적으로 굴원을 추모하는 활동도 그러하다. 앞서 도연명처럼 굴원과 「초사」 역시 경은시사에게는 특수한 함의를 담고 있다. 유민들은 굴원을 통해 자신들의 애국정서를 기탁하고 망국의 비분함을 표현하고 있다. 경은시사는 10여 년 동안 줄곧 굴원에 대한 추모제를 보내며 그의 사상과 인격 및 예술정신을 추송해왔다. 주학령은 「이소」를 좋아하여 “이를 통해 슬픔과 근심을 드러내었다.”<sup>64)</sup>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국가와 자신에 대해 시대는 다르지만 굴원과 같은 비장함을 느끼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귀장은 『귀장집』에서 향초, 미인, 꽃 등을 노래한 작품이 무려 90여수나 된다. 매화, 국화, 해바라기, 모란, 해당화, 월계수, 모란, 도화, 낙화 등 풀과 꽃에 대해 읊고 있다. 물론 귀장이 화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벽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장의 붓끝의 각종 꽃들은 대부분 순수한 자연의 물상이 아니라 시인의 정감을 기탁하여 시대적 내함을 풀어내고 있다. 낙화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의탁하여 말하고 있다. “나는 살아가면서 때를 잘못 만나 여러 차례 변고를 만났다. 객은 형 땅[굴원]에 있지 않는데 항상 꽃과 열매가 들을 가득 채우는 생각을 한다. 몸은 강남에 있지만 여전히 큰 나무에 쓸쓸한 부는 바람을 느낀다. 바람과 나무는 통렬히 아파하고 꽃도 몹시 슬퍼한다.”<sup>65)</sup> 귀장은 꽃을 노래하고, 꽃은 좋아하고, 꽃을 안타까워하고, 꽃을 애도하면서 꽃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기탁하고 있다. 이는 굴원이 꽃과 풀, 향초 등으로 국가, 군주, 자신 등의 심정을 기탁하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

다음은 나라를 잃은 아픔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드러낸 周灿의 「东湖吟」을 보자.

동호에 땀감 파는 나무꾼, 성은을 얼마나 입었던가. 갑자기 고국의 운명의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며 몸을 호숫가에 던진다. 남아가 목숨을 바치는 것 또한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리. 나무꾼은 싸늘하게 죽었건만 어찌하여 성씨조차 알 수 없는가. 혹자는 은자라고하면서 촌부는 꼭 그렇게 하진 못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인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필부의 감격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평생 공맹의 책은 읽지 않아도 하늘을 위해 사내대장부로 남으리라. 오호라! 상강의 호숫가에 굴원을 아는가. 동호의 나무꾼은 과연 누구이던가. 나무꾼은 한 조각 마음만을 남길 뿐인데 그 마음은 동호의 물에 가득하구나. 동호여, 동호여! 온통 나무꾼의 피로 가득하구나. 호수는 마를 수 있어

64) “時藉以發悲憫”

65) “我生不辰，遭值多故，客非荊土，常動華實蔽野之思；身在江南，仍有大樹飄零之感。以至風木痛絕，華萼悲深。”

도 나무꾼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리.<sup>66)</sup>

일반 나무꾼이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물에 뛰어 들어 자살을 했다. 누군가는 그가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은둔자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인의의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공맹의 책을 읽지 않아도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훌륭한 명성이 영원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꾼을 크게는 유민, 작게는 시인 자신에 비유하면서 은자이든 학식이 있든 촌부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민이라면 충의로운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상강과 동호, 굴원과 나무꾼을 대비시켜 자연히 굴원이 강물에 뛰어 든 것과 나무꾼이 호수에 몸을 던진 것은 모두 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킨 것으로 칭송한다. 충의의 마음을 가진 촌부가 인생 선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은시사의 사집에서 5월에 항상 굴원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왔던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시인은 시로 역사를 보존하고 긴 율조림으로 고통을 풀어낸다. 촌부의 죽음이 가져온 역사적 비가를 통해 유민들의 충심과 충절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주찬은 「培菊」, 「護蘭」, 「弔梅」, 「除草」 등의 시에서 국화, 난 꽃을 통해 군자에 비유하면서 유민으로서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 절개를 의탁하고 있다.

### 3. 민족과 자존: 정사초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는 것은 군주에 충정을 바치고 나라에 보답하는 방식이다. 경은시사 구성원들은 시가에서 자주 역사상의 은사(隱士)를 추억, 추모하고 선현들을 모범으로 삼아 절개와 충절을 지키고자 했다. 경은시사 구성원들이 자주 읊는 은사는 도연명, 張志和, 鄭思肖 등이 있다. 이들 은사에겐 자신 스스로 은둔하여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연명, 장지화는 관직생활을 하다가 적절한 때에 빠져나온 시인이고, 정사초는 은거하며 저술을 한 유민이다. 이 가운데 정사초의 처지와 삶은 경은시사의 구성원들과 가장 유사하다.

鄭思肖의 이름은 思肖이고 호는 所南이다. 송나라 말기 문인이자 화가이다. 남송 멸망 후 思肖로 개명하였다. 思趙의 뜻으로 趙씨 왕조 송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호 所南은 북을 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元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특히 墨蘭을 잘 그렸다. 그가 그린 난의 특징은 꽃과 가지가 흩어져 있고 뿌리와 흙을 잘 그리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여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시인이자 화가인 주찬은 「題鄭所南墨蘭卷」에서 정사초가 난을 사랑하고 도연명이 국화를 사랑하고 주돈이(周敦頤)가 연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난의 청초함은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고, 못 꽃들이 요염 떠는 것과는 다르네. 그 모습은 홀로 은자와 친하니 세인들은 공연히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네. 오호라 난은 참군자요 정공의 참된 지기 로다. 공은 말년에 비린내 나는 바람불어와 갖웃 걸치고 못가에서 뉘시질하며 그 뜻 굽히지 않았도 다. 그 고결한 자태는 아름다운 난 꽃의 향기와 같고 유유하게 홀로 소상가의 뜻을 품고 있네. 나의 紫硯으로 불어와 나의 노송목을 갈게 하네. 묵화는 편편히 백색 비단 위로 떨어지고 시원한 바람

66) “东湖卖柴一樵父，沐浴圣恩能几许。忽闻皇家革大命，恸哭举身赴水浒。男儿肯捐生，亦图身后名。樵夫死得最凛冽，何故姓氏无分明。或云当是隐君子，野人未必能如此。仁义之心皆有之，匹夫感激何不为。生平不读孔孟书，偏为天壤留须眉。噫嘻！湘江滨，识屈子；东湖樵，竟谁是。樵夫只留一片心，此心尽在东湖水。东湖东湖，直是樵夫满腔血。湖可竭，樵夫之心不可灭。” 周灿，《澤畔吟》123책, 상해서점출판사, 474쪽.

담백한 그림자 함께 드러나네. 도잠의 국화는 올라리 아래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 주무숙의 연꽃은 바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네. 저 난은 공경할 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너희 같은 것들과 한 무리가 되겠는가. 우아하고 초연하게 홀로 진흙에서 나오는 것이 안타깝구나. 꽃과 뿌리가 황토에 드리우게 하지 않으리. 붓끝으로 은자의 뜻을 빼어나게 그려나가고 사악하고 더러운 때 벗겨 버리니 마음 유독 괴롭구나. 춘추의 필삭이 역사에 드리우듯 이 글의 포폄 또한 우뚝하리라. 난 꽃으로 자처하며 멀리 뜻을 의탁해본다. 출처와 대의가 어찌 이리 엄한가. 오호라! 정 공자는 참된 군자요. 난은 나의 참된 지기로다.<sup>67)</sup>

난, 국화, 연꽃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는 고결한 절개이다. 또한 굴원이 품은 ‘瀟湘意’이다. 난은 장사초의 지기일 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의 지기이기도하다. 정사초의 난은 뿌리도 흙도 없고 우아하고 초연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곧은 은자가 절개를 지키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정사초는 또 국화에 대해서 “차라리 향기 나는 가지를 붙들고 죽을지언정 어찌 북풍 속에서 먼지를 날리겠는가.”<sup>68)</sup>라고 묘사했다.

또한 ‘春秋筆削垂編年’은 정사초의 유저 『心史』를 가리킨다. 『心史』는 명나라 말기에 발견된 것으로 사학과 문학에서 모두 가치를 인정받아 당시 많은 애국지사들의 관심과 추앙을 받았다. 『心史』에 실린 시문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잃어버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적 절개와 자신의 지조를 비키려는 유민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다.

#### 4. 경은시사의 은거와 비애

경은시사의 구성원들은 명나라 멸망 후 자발적으로 생원<sup>69)</sup>의 신분을 포기하고 벼슬을 포기하며 은거생활을 택했다. 청초 압박과 통제가 더해져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인 면에서 열악해져갔다. 그들의 시문에는 순전히 여가의 의미에서 산과 계곡에서 한가로이 노닐며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는 내용, 농촌에서 한가롭게 자족하며 지내는 내용은 드물다. 이를 테면, 명대 문인결사 가운데 아흥(雅興)을 즐기는 시사가 많았던 것에 비해, 청초에는 시사라 할지라도 유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여가, 친목 차원의 아흥성 시사는 거의 없었다. 은거하여 농촌에 거한다 해도 그것은 천성이 농촌의 목가적인 생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피난의 도피처로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농촌의 주제라 할지라도 대체로 근심과 고통, 슬픔과 비애, 늙어가는 데 대한 비탄 등 비애의 정서도 많았다.

유민들의 은거생활은 일반인의 은거 생활과는 다르다. 유민들은 궁극적으로 관료사회를 떠나기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들의 인격과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청빈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초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뉴개(鈕棨)의 「秋懷」에는 처자식에게 가을 옷을 입힐 힘조차 없는 가난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서풍이 갑자기 차가워져 솜이 든 옷을 입어야하건만. 처자식은 홑옷을 입고 내 앞에서 떠는구나. 내게 물어도 대답할

67) “兰之清芬世莫比，不似凡花媚人喜。风标独与高士亲，世人谬爱徒然耳。呜呼兰兮真君子，呜呼郑公真知己。公之季，腥风吹；披裘钓泽，厥志不坠。孤芳娇娇气若兰，悠然独抱潇湘意。拂我紫硯田，揮我老松墨。墨花片片落素練，疎風淡影相聯翩。陶潛菊子，篱下俯；茂叔蓮，风前舞。吾兰可敬不可狎，詎令若等同俦伍。更怜丰韵独出尘，不令芳根丽黄土。笔端磊落写出高士意，嫉邪去秽心独苦。春秋笔削垂編年，此卷褒誅亦卓然。芳兰自命托意远，出处大义何其严。呜呼！鄭公子，真君子，呜呼兰兮真知己。”周灿，「澤畔吟」，상해서점출판사，《叢書集成續編》제123권, 422쪽.

68) “宁可抱香枝头死，何曾吹落北风中.” 鄭思肖「寒菊」.

69) 古代经考试录取而进入中央、府、州、县各级学校，包括太学学习的生员。生员有增生、附生、廩生、例生等，统称诸生。송나라 이후 현시(縣試)·부시(府試)·원시(院試) 등의 시험에 합격, 주·부·현학(州府縣學)에 들어간 생도를 생원이라 하여 감생(監生)과 구별해 사용하였다.

길이 없어 멍하니 텅 빈 벽만을 바라본다.” “남쪽 이웃의 가난이 가슴에 사무치고, 북쪽 마을 부유함이 하늘을 덮고 있구나. 만물을 지음이 본디 가지런하지 않으니 어찌 또 우매함과 현명함에 달려있겠는가!”<sup>70)</sup> 빈곤이 꼭 은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은거는 세속과의 결연한 도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世事를 완전히 잊는 것이란 불가능하다. 다만 내면에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외부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시인이 자신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초심은 절개와 명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청 정권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탄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시름에 기대어 스스로 자적하는 것일 뿐이다.”<sup>71)</sup>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전란에다 사회 환경의 불안이 더해져 한 곳에서 장기간 은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전란으로부터 피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유민들은 거처를 옮겨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타지의 생활에서 만나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그러나 오종한은 「寄故乡诸友」에서 비록 고향을 그리워하다 귀밑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평소에 품었던 포부를 펼칠 수 없고 동지들과 모의한 대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sup>72)</sup> 따라서 산림에서의 은일한 삶이 꼭 자적한 삶만은 아니며, 그 때의 감정은 슬픔과 비애로 표현된다.

게다가 망국의 고통을 경험한데다 또 청초의 압박정치의 상황에서의 시인들이 만약 도연명처럼 유원자적하고 순정한 경계를 찾기란 거의 힘들 것이다. 하물며 경은시사의 적잖은 시인들은 모두 반청복명의 실패 후 잠시 결사를 환난의 피신처로 삼았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은시사의 시인들의 작품에 드러나 맑고 심오함은 진정으로 도연명식의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며 한적함(閑趣) 역시 도연명 식의 한적함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안언준(顔俊彦) 「村居雜興」을 예로 들면, 그 가운데 “병들어 열흘간을 몸져 누웠더니 얼굴은 껍데기만 되고, 매화꽃 다 떨어지니 살구꽃이 피었네; 장식한 기둥엔 텅 빈 동지가 무수하고 추적추적 봄비 내려 제비는 돌아오지 않네.”<sup>73)</sup> 한가하고 한적한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오히려 처량, 적막, 상실, 슬픔 등의 색채가 더 강하다.

물론 한 인물에 대한 추송은 완전하게 동일화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추송, 모방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불행은 문인들과 농촌 생활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나라회복의 꿈이 요원해질수록 정신이 더 피폐해질수록 전원생활은 조용한 낙원이자 정신적 고향이 된다. 혼란한 세상을 피하여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은시사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진정 은거하는 이유는 도연명처럼 천성이 세속과 맞지 않고 농촌과 자연과 하나 되는 성정을 가져서라기보다 피난으로서의 다소 일시적 은거일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경은시사의 특성과 활동 속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V. 맺으며

70) “西风顿凉冷，衣被应装绵。妻儿负单夹，唏嘘当我前。问我我不应，四顾空茫然。”“南邻贫彻骨，北里富薰天。造物本不齐，岂复关愚贤!” 鈕琇, 『觚剩』1卷『吳觚·上』‘貞白樓詩’, 상해고적출판사, 1986, 4쪽.

71) “寄愁聊自适” 鈕榮「初冬野望」, 袁景輅『國朝松陵詩征』1卷, 乾隆愛吟堂刻本, 22쪽.

72) 吳宗漢「寄故乡诸友」, 鈕琇, 『觚剩』1卷『吳觚·上』‘歲寒集’, 상해고적출판사, 1986, 3쪽.

73) “病臥經旬滿面埃，梅花落盡杏花開；畫梁無數空巢在，社雨蕭蕭燕不來。”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 만주족의 통치, 청초 주소안(奏疏案)·문자옥 등 정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명대 유민은 다양한 생존의 길을 걸어왔다. 본고는 청초 유민결사, 강남지역의 유민결사, 결사의 작품 등을 통해 경은시사가 청초 유민결사에서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청초 명대 유민들의 생존방식은 청초 유민들이 선택한 생존방식은 명 조정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거나, 도피하여 산림 속에 은거하거나, 왕래를 끊고 저술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거나, 벼슬을 거부하며 市井에서 섞여 사는 등 다양한 선택으로 삶을 이어왔다.

원나라 때 송대의 유민결사는 주로 남송의 고도 항주를 주축으로 하는 절강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 유민결사 역시 명대의 고도 남경을 주축으로 하는 강소 일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청대 유민결사는 강소를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절강·복건·광둥 일대로 확대되고, 서쪽으로는 강서·안휘·호남 일대로, 북쪽으로는 산둥·하북으로, 서북쪽으로는 산서·섬서 등의 전국적인 분포를 형성하였다.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분포는 송대 유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모두 여전히 강소·절강 일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또한 청초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적 특징은 명말 문인결사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문인결사활동이 빈번한 지역은 유민결사도 빈번했다. 소주, 송강 등의 강남지역은 문인결사의 전통이 깊은 곳이며 유민결사 또한 활발한 곳이었다. 또한 청초 蘇州府, 松江府 및 常州府의 宜興, 江陰 등은 명말청초 시기 항청 투쟁이 격렬한 곳이었으며 유민결사의 활동도 활발했다.

지역적 분포로 볼 때, 송원시기 문인결사의 지역적 분포와 마찬가지로 명대에도 경제적·문화적·사상 문화적으로 발달된 강남지역의 강소·절강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강남지역의 인문환경은 문인결사 외에도 유민결사, 문인출신지, 역대 장원배출, 서원의 분포, 출판업의 성행 등의 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명·청시기 강남 지역은 중국 고대 인문학의 흥성지로서 지식인의 출현, 지식담론과 유파, 지식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향후 보완되어야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 적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청초 유민결사는 원대 송 유민에 비해 수량도 많고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청초 유민결사의 구성원 가운데는 청초 사상영역과 문학영역에서 유명한 문인들이 많다. 고염무(顧炎武), 귀장(歸莊), 황종희(黃宗羲), 육세의(陸世儀), 손기봉(孫奇逢), 여류량(呂留良), 만사동(萬斯同), 진호(陳瑚), 염약거(閻若璩), 주학령(朱鶴齡), 모선서(毛先舒), 굴대균(屈大均), 진공운(陳恭尹) 등은 유민결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거나 참여해왔다. 이는 청초 명대 유민결사가 청초 문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초유민결사가 청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고 나아가 문인사단, 문학유파, 문학사조 등과의 연관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가경전을 강론하는 것은 유민결사 활동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강학성 결사인 蓮社, 水村讀書社는 실제 유가 경전과 시문창작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조대가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한 민족내부의 분쟁의 결과이므로 화이지변이 존재하지 않지만, 송말원초 명말 청초는 몽고족과 만족이 중원의 주인이 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고염무 역시 이에 대해 ‘망국’과 ‘망천하’로 나누어 설명한다. 망국은 단지 한족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고, 망천하는 한인이 민족의 존엄을 상실하고 정치적 담론권을 잃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대 유민 결사의 유교적 관점을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청초 유민 가운데는 승려가 된 경우가 많다. 『明遺民錄匯編』을 보면 2000여명의 유민가운데 승려가 된 사람은 약 30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약 200명이나 된다

고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遺民僧’이 청초 불교사와 사상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개별연구로서 연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何宗美,『明代文人結社研究與文學流派研究』,北京:人民出版社,2015.
- 曾大興,『中國歷代文學家之地理分布』,北京:商務印書館,2013.
- 曾大興,『文學地理學研究』,北京:商務印書館,2012.
- 何宗美,『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續編』,北京:中華書局,2006.
- 梅新林,『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6.
- 何宗美,『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4.
- 郭英德,『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8.
- 郭英德,『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修訂版),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8.
- 譚正璧,『中國文學家大辭典』(全二冊),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1998.
- 歐陽光,『宋元詩社研究叢考』,廣東:廣東高等教育出版社,1996.
- 郭紹虞,『照隅室古典文學論集』(上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3.
- 周于飛,「驚隱詩社研究」,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2012.
- 李偉煌,「中國文學地理學論著的數理統計與分析」,廣州大學 碩士學位論文,2012.
- 吳增禮,「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湖南大學 博士學位論文,2010.
- 王文榮,「明清江南文人結社研究」,蘇州大學 博士學位論文,2009.
- 周于飛,「驚隱詩社與山陰秘密反清團體交遊考」,『紹興文理學院學報』,2016,第6期.
- 張濤,「文學社群與明清地域文學流派」,『江蘇師範大學學報』,2014,第1期.
- 王文榮,「一部鮮為人知的明遺民詩社總集:頑潭詩話」,『浙江大學學報』,2013,第6期.
- 李玉栓,「中國古代的社·結社與文人結社」,『社會科學』,2012,第3期.
- 楊緒敏,「論吳炎、潘柟章與『明史記』的纂修」,『史學史研究』,2012,第2期.
- 楊緒敏,「論吳炎潘柟章與『明史記』的纂修」,『史學史研究』,2012,第2期.
- 周于飛,「驚隱詩社成員認定過程考論」,『廈門教育學院學報』,2011,第3期.
- 王文榮,「清初江南遺民結社研究:以蘇松常鎮四府為考察中心」,『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11,第4期.
- 朱則杰,「驚隱詩社成員叢考」,『中國文學研究』,2011,第3期.
- 周雪根,「清初吳地驚隱詩社新考」,『國學論衡』,2011,第2期.
- 周于飛,「驚隱詩社成員認定過程考論」,『廈門教育學院學報』,2011,第3期.
- 王文榮,「清初江南遺民結社研究:以蘇·松·常·鎮四府為考察中心」,『南京师范大学文学院学报』,2011,第4期.
- 吳增禮,「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甘肅社會科學』,2010,第6期.
- 周于飛,「驚隱詩社成員著作考」,『衡陽師範學院學報』,2010,第5期.
- 常新,「清初關中遺民生存境域與文學生態:以游幕·隱居·結社為例」,『甘肅社會科學』,2010,第5期.
- 孔定芳,「明遺民的群體身分認同旅群體聚合」,『中南民族大學學報』,2010,第1期.
- 江庆柏,「明清时期年号纪年法的规避」,『文史知識』,2003,第7期.
- 何宗美,「樂志林泉,跌蕩文酒:驚隱詩社及其文學創作淺析」,『南開學報』,2003,第4期.
- 曾大興,「中國歷代文學家的地理分布:兼談文學的地域性」,『學術月刊』,2003,第9期.

張兵，「清初遺民詩創作的社會文化環境與遺民詩群的地域分布」，『西北師大學報』，1999，第4期。